

기도

1.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내가 한 비판과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2. 나를 변화로 이끌었던 진주와 같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신앙

### 들보의 뜻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걸치는 나무로서, 벽, 지붕, 문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배틀채 나 직조기의 몸체로 번역되기도 했다. 즉 ‘들보’란 통상 크고 두꺼운 목재를 가리킨다. 성경문학적으로 상대의 작은 허물에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신의 큰 허물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



# 구역 공과

2023년 10월 15일

거룩한 것을 받으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거룩한 것을 받으라

마태복음 7장 1-6절 (찬23장, 250장)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총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 첫 번째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1-4절).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게 되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3-4절). 이들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말씀입니다(5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5절). 우리 눈의 들보를 빼지 않으면 **첫째, 남의 티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들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다르게 보고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둘째, 내 속의 들보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커다란 들보에 눈이 가려지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타인의 부족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들보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빼내야 다른 이들의 티를 빼 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것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6절).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6절). 개와 돼지는 눈이 어두워진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개와 돼지는 아무리 값진 것이 앞에 있어도 결국에는 먹을 것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보물의 가치를 모른 채 밟고 더럽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찢는 정죄의 도구로 여기며 거룩한 진리를 짓밟고 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며 소생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자신의 눈의 들보를 빼내어 거룩한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당하게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의 들보로 인하여 심령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작은 허물을 비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의 허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합니다.

